

# La Lanterno Azia

에스페란토 [ Oficiala Organo de  
Korea Esperanto-Asocio ]



Foto\_SHIN Youngmuk

La 160a Zamenhof-Tago  
kun La 2a Tago de Esperanto-Libro  
(15 decembro 2019 Seula Urbodomo)



### Novjara saluto

Grava Jaro, Prava Faro  
중요한 해에 해야할 일



### Forumo

La 1a Esperanto-Forumo  
inter Seulo kaj Shanghai



### Agado de KEA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  
2019년 활동 보고



<http://www.esperanto.or.kr>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 La Lanterno Azia

Oficiala organo  
de

Korea Esperanto-Asocio

jarkolekto 46 n-ro 362(1/2)  
Januaro/Februaro 2020

Jara abonprezo  
11.5 eŭroj(aerpoŝte)

편집위원장 : 조명자  
편집부장 : 김형근  
편집위원 : 박수진 장수미

기관지 발행 후원회원(2020년)  
박화중

- 기사 모집 주소 -

**kea@esperanto.or.kr**

1975년 9월 15일 창간

## Korea Esperanto-Asocio

1601 (Gangbyeon Hansin Core B/D)  
18, Mapo-daero 4da-gil, Mapo-gu,  
Seulo 04177, Koreio  
telefono : +82-2-717-6974  
telefakso : +82-2-717-6975  
retpoŝto : **kea@esperanto.or.kr**  
http://www.esperanto.or.kr/

Landa Asocio  
de

Universala Esperanto-Asocio  
ekde 1976

UEA-kodo : keas-t

Fondita en 31 julio 1920

Reorganizita en 31 aŭgusto 1975

Prezidanto : SO, Jinsu

Ĝenerala sekretario : KANG Houngu

제 작 : 성문기획

# 목 차 ENHAVO

3. Novjara saluto / Grava Jaro, Prava Faro / SO Jinsu
  4. Novjara mesaĝo / La arto labori kune / Duncan Charters
  6. Novjara kunveno / 2020년 새해인사 모임 / 박수진
  7. 160회 자멘호프 탄신제 / La 160a Zamenhof-Tago kun La 2a Tago de Esperanto-Libro / OH Soonmo
  9. 8차 광주전남·전북지방 공동연수 / La 8a Komuna Staĝo de GwangjuJeonnam·Jeonbuk-filioj / LEE Hyunmi
  12. 1회 서울·상하이 에스페란토포럼 / La 1a Esperanto-Forumo inter Seulo kaj Shanghai / PARK Haesim
  14. KEJ / Kiel iris KEJ en 2019? /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15. Libroservo / 새로 들어온 책
  16. Recenzo / Konsolvirinoj de Japana Imperia Armeo / PARK Sujin
  18. Enlande / 국내소식
  21. Eksterlande / 국외소식
  21. Agado de KEA dum 2019 / 2019년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 / 조명자
- 앞표지 사진 제공: 신영택 뒤표지 광고 후원: 박화중

##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1920년 7월 31일 조선에스페란토협회 창립  
1976년 7월 31일 세계에스페란토협회 국가지부 가입  
1986년 12월 13일 사단법인 등록(법인허가증 287호)

명예 회장 : 장충식 정원조 박화중 이증기 이영구  
지도위원 : 김광수 김영명 김용진 김우선 김종태 마영태 박강문 박기완  
박용세 서길수 성준경 신종태 신차식 양옥남 이낙기 이용철  
이일봉 이종세 이학선 이환의 전경덕 조성호 한덕섭

회장 : 서진수  
부회장 : 강병훈 김인홍 오순모 정현주  
(조직) (국제) (총무) (재정)  
이사 : 김용진 김 주 엄미련 유영애 이남행 이용철 이현숙 장영은  
(사업) (국제) (교육/학숙) (홍보) (KKE) (출판) (청년) (교육)  
정회정 최유식 최정욱 최정철 한숙희  
(조직) (100주년) (홍보) (누리집) (조직)  
비상임이사 : 광중훈 김승아 김시현 박용승 박종영 백수정 오기숙 이선희  
이현우 장기수 조만진 최향숙 홍성조

감사 : 이길성 유필근  
사무국 : 사무국장 강현구

출판영상위원장 : 이용철

어학위원장 : 허 성

청년회 : 회장 신현규 부회장 오희연(국제) 박상현(국내) 총무 박장호

홍보대사 : 김유승 김태훈 김 훈 엄홍길 윤무부 채수정 최영태 한병길  
한해원

UEA 명예고문 : 장충식

UEA 명예회원 : 서길수

UEA 이사 : 서진수 (A 이사·UEA 임원), 이증기 (B 이사)

UEA-ĉefdelegito : 서진수

UEA 에스페란토 학술원 회원 : 마영태

04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강변한신코아빌딩)1601호

전화 : (02) 717-6974 전 송 : (02) 717-6975

전자메일 : kea@esperanto.or.kr

홈페이지 : http://www.esperanto.or.kr/

국민은행 : 031-01-0365-220 [예금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 Grava Jaro, Prava Faro

– 중요한 해에 해야할 일 –

D-ro SO Jinsu / prezidanto de KEA



La jaron 2020 ni koreaj esperantistoj akceptas kun speciala graveco, preparante la celebren de la 100-jara jubileo de KEA. Ni ĉiuj nun pretigas diversajn kunsidojn, eventojn, kaj kunlaboras por eldonaĵoj kaj memoraĵoj.

Por tio KEA jam ekfunkciigas la komitaton de celebra laboro kaj preparo de nova jarcento.

Tre kaj tro rapida evoluo de sciencoj kaj facile skuanta homa valorokoncepto, kaj la necerteco de terglobaj aferoj minacas nian vivon kaj socian trankvilecon. Kaj ni ofte ekpensas, kio estas la plej grava en nuna tempo, ĉu mi povas esti savita el tiu ĥaoso, kaj ĉu Esperanto travivos el la konkurso kaj batalo kontraŭ komputiloj, retejoj kaj iliaj tradukiloj kaj interpretiloj, ekzemple tiuj de Google, Naver, Kakao ktp.

Alfronte la gravajn jaron kaj eraon, ni ne devas ne elpensi pravajn farojn, kaj prepari pravajn solvojn. Dum la procedo, ni devus jen defii, evoluigi, krei kaj jen eĉ ŝanĝi multajn, kiuj jam nin kaptas en alĉutimo kaj komforto. Atingo al la pli alta celo per novaj metodoj kaj pensmanieroj kun malferma koro kaj senĉesa scivolemo, garantios al ni la novan jarcenton.

Sur la bazaj sloganoj de nia Asocio “Kunlaboro, Servo, Kapabligo, Direktu Eksteren” ni ekposedu la freŝajn kaj elastajn pensojn por novaj 10-jaro kaj 100-jaro kaj la erao de artefarita inteligenteco. Ni ja devas ofte memdandi, kiuj kiel heredu la

pasintajn meritajn tradiciojn, kiojn kiel ni postlasu por futuro kaj estontaj esperantoparolantoj. Kaj ni devus decidi ĉion konsiderante riskojn kaj minacojn al nia movado kaj asocio en estonto.

Estraranoj, komitatanoj, filiestroj, ĝenerala sekretario kaj mi estas okupataj, ĉar tasketoj multas. Mi tamen estas ĉiam optimisma por nia estonto, ĉar vi estas kun ni, kaj vi vere favoras al la asocio. En nia Asocio, ĉiuj ofte kunlaboras, multaj pretas servi, talentaj bonvolas kapabligi komencantojn, kaj nun restas al ni nur aktuala plano de “Direktu Eksteren” por reklami nin al ekstera mondo, neesperantistoj kaj homoj, kiuj jam aŭdis pri nia lingvo, sed renkontas unuafoje la parolanton.

Do, karaj kolegoj, ni interne akumulu potencon por ni mem kaj ni nin direktu al ekstera mondo por pli vaste verdigi la mondon, kiel denovaj kaj ankoraŭfojaj pioniroj en la nova centjara historio de Korea Esperanto-Asocio.

Dankon, feliĉon kaj sanon al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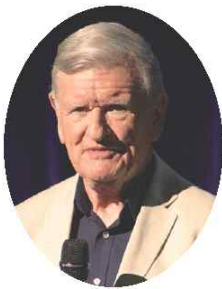
– 100주년을 맞는 우리 KEA 회원들은 인공지능시대에 전개될 많은 경쟁 대상과 번역기의 발전에 주목하며 다양한 자문자답으로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해주시고, 협회가 내세운 “협업, 봉사, 실력배양, 외부와의 소통” 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열린 마음과 끝없는 호기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원, 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잡무로 바쁘지만 저는 협회의 미래에 대해 항상 낙관적입니다. 늘 호의적인 회원들이 계셔서! 금년엔 실력도 기르고, 외부와 소통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

## La arto labori kune - 협력의 예술 -

Duncan Charters / prezidanto de UEA



‘협력의 예술’은 UEA 전 회장 험프리 톤킨 (Humphrey Tonkin) 박사가 10년 전 엮은 논문집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언어’인 에스페란토와 그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언어, 에스페란토는 미래의 모든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 생각, 감정, 개념 등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번역기들의 눈부신 비약과 힘센 언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상호 간의 중립적인 소통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당시 회장 마크 페트스 (Mark Fettes)는 우리의 임무는 에스페란토로 전 인류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묶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험프리 톤킨이 말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전 세계 에스페란토 국제조직’을 만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그 목표에 도달할까요? 그런데 왜 에스페란토요? 이런 개념이 우리 회원들에게 필요하고, 지금 시대에 받아들여질까요?

나는 아홉 살 때 에스페란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페란토를 각인시켜준 영국인 교장은 에스페란토 발전을 오롯이 에스페란티스토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협회의 몫입니다.

몇 년 전 UEA 수석대표 빌 하몬 (Bill Harmon)과 함께 워싱턴의 한 라디오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인터뷰대상자는 당시 사회 주변부에서 활동하던 여러 단체의 대표들이었고, 우리 순서는 마지막 즈음이었습니다. 인터뷰진행자는 대중들 앞에서 인터뷰대상자들을 공공연히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을 기다리면서 이보 라페나 (Ivo Lapenna) 박사가 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에스페란토를 반대하는 주장을 반박할 여지는 충분

하다. 단, 시간을 내서 입증할 사실들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빌 하몬과 나는 눈빛을 교환하고, 긍정적으로 침착하게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라이트 형제 앞에서 사람이 기계 속에 들어앉아서 하늘을 난다는 생각이 얼마나 황당하냐고 비웃고 조롱했더라면... 오늘날 내가 바보가 되었겠죠!”

어떻게? 존경심과 평상심으로 행동했습니다. 인터뷰 현장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진행자의 전문성을 믿었습니다. 대중 앞에 선 진행자가 고유의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에스페란토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는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백 만 명 이상이 듀오링고와 그 밖의 언어학습 사이트를 통해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 회원 수는 줄어들고, 재정 형편은 기울어 갑니다. 그렇다고 예산과 서비스를 줄여나가면 협회는 존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재정의 형평성을 맞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몬트리올 세계대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UEA 임원진은 협회의 회원의존성을 탈피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착수해서 그 성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여러 조직체에게 당신들과 함께 일하고 당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 열망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능력을 내보여야 합니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회의에 우리 대표가 참석하여 공인된 비정부기구 대표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의 시민사회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힘센 언어만 강요돼서 일어나는 각종의 문제와 차별을 부각시켰습니다. TEJO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해 신속한 문서번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KSO 팀이 만드는 새로운 UEA 웹 사이트가 올해 안에 완성되면, UEA와 TEJO를 통합한

새 사이트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UN 창립 75주년인 2020년, UK의 주제 “국제 연합 75주년”에 대한 공개 토론회는 우리가 세계 평화와 지구의 보존을 포함한 상호간의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유엔의 활동이나 목표에 대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조직체 안팎의 여러 관심 분야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활동 방안을 생각합니다.

지난해 라티(Lahtio)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 후보가 두 명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회장직에 적절한 한 인물을 찾아 후보로 내세워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회장직 후보를 사퇴했을까요? 둘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을까요? 아닙니다. 두 후보는 상대방이 조직에 미칠 장점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득표순으로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동반한 포용하는 민주주의! 이는 곧 에스페란토 문화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 운동과 같은 형태의 활동에서는 반대의견이 다소 많습니다. 이럴 땐 무엇보다 먼저 에스페란토의 가치를 빛내려고 마련한 좋은 동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개성에 따라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아껴주면 우리들 자신이 보다 더 강건해집니다. 자멘호프 박사를 기리려면 우리 내부인들 끼리의 다툼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 간의 충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의심과 오해를 보태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져야합니다.

UEA가 활동에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두 가지를 목표로한다면 우리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는, 일 년 동안 꾸준히 기여할 특정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겸허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친 물결을 헤쳐 나가, 우리 이념의 실질적인 논리와 이상을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우리의 자신감과 기대성취에 의지해 약진하리라 소망합니다.☺

<번역 최은숙 : 윗글은 UEA 회장의 신년인사 전문(全文)이 아닌 요약 번역문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회원 가입

- Aliĝi al KEA -

- 평생회원: 1,000,000원
- 일반회원: 50,000원 (CMS 출금: 매월 5,000원)
- 가족회원: 25,000원 (일반·평생회원 가족이 있는 경우)
- 학생회원: 20,000원 (중학생~대학생, 대학원생은 제외)
- 후원회비: 성의껏
- 납부: 국민은행 / 031-01-0365-220 / 한에협

※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정보, 대회참가 사무대행, 학습을 위한 각종 지원과 교류, 시험응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한국에스페란토운동을 후원할 수 있다.

## 세계에스페란토협회 회원 가입

- Aliĝi al UEA -

기본회원 (BM) Baza Membro	27€ (37,800원)
구독회원 (MA) Membro-Abonanto	57€ (79,800원)
평생 기본회원 (DBM) Dumviva Baza Membreco	810€ (1,134,000원) (기본회원의 30년분)
평생 구독회원 (DMA) Dumviva Membro-Abonanto	1,710€ (2,394,000원) (구독회원의 30년분)

- 기본회원: 인터넷으로 UEA 기관지 *Esperanto*와 각 지역분과 대표망인 *Delegita reto*를 구독, 35세까지 *Kontakto*의 인터넷판을 구독할 수 있다.
- 구독회원: 기본회원과 동일하며, 종이판 *Esperanto*와 *Kontakto*(35세까지)를 추가로 구독할 수 있다.
- 평생 기본/구독회원: 기본/구독회원과 동일하다.

● Novjara kunveno

## 2020년 새해인사 모임

La 11an de jan. 2020, kunvenis 24 esperantistoj en la oficejo de KEA por Novjara Saluto. Ĝi komenciĝis per la salutvortoj de prez. SO Jinsu, kaj la ĉeestantoj salutis unu la alian por feliĉa 2020.

En la novjara saluto prez. SO donis mesaĝon de ‘sendependeco kaj interdependeco’. Li petis de la membraro, ke en la speciala jaro 2020 kun la 100-jara jubileo de KEA, ni kunlaboru por nia movado kun la konceptoj de sendependeco de financaj aferoj kaj la interdependeco de la membroj de KEA.

D-ro SO Gilsu, honora membro de UEA, prelegis pri du eksprezidantoj de KEA, jam forpasintaj tamen ankoraŭ vaste konataj ankaŭ en aliaj kampoj krom Esperantujo. Iliaj anekdotoj rilataj al Esperanto estis karmemoraj por malnovaj membroj kaj interesaj por la novaj, kiuj neniam aŭdis la rakontojn.

Kantante la himnon ‘La Espero’ la partoprenantoj deziris grandan sukceson en nia movado.

- 1월 11일 17시, 협회 사무실에서 강헌구 사무국장의 사회로 2020년 새해인사 모임이 진행됐다. 24명 참석. 서진수 회장은 새해인사에서 금년은 KEA 설립 100주년의 해로서 한국 에스페란티스토들에게 매우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며, ‘재정의 독립성과 회원간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도 새해인사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2020년 KEA 행사일정 소개에 이어 서길수 박사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8대 회장 이은상, 10/11대 회장 최덕신”이란 주제로 서길수 박사가 1년간 이은상 회장 자택에 머물며 이 회장께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며 있었던 일화들을 들려주었고, 최덕신 회장의 에스페란토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나 왜 갑자기 에스페란토계를 떠나게 되었는지 등을 소개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La Espero 제창과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저녁식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박수진 / 편집위원>



Novjara Kunveno (11 jan. oficejo de KEA)

## La 160a Zamenhof-Tago kun La 2a Tago de Esperanto-Libro

OH Soonmo (Brila) / vicprezidanto de KEA

Okaze de 'La 160a Zamenhof-Tago' kunvenis 57 membroj de Korea Esperanto-Asocio en la Seula Urbodomo en la 15a de decembro kaj celebris la solenan tagon kun 'La 2a Tago de Esperanto-Libro'. Kun la himno 'La Espero' kaj la saluto de prez. SO Jinsu la ceremonio komenciĝis kaj sinsekvis laŭvice diversaj memorindaj aferoj rilataj al la agado de KEA dum 2019 kaj por 2020.

Por la 100-jariĝo de KEA en 2020, d-ro CHONG Woncho, prezidanto de ĝia prepara komitato, prelegis kun la temo "Gravaj pioniroj laŭ periodoj" kaj la gvidkomitatano JEON Gyeongdeok prelegis pri korea Esp.-movado dum 1960~1970aj.

En la 2a Tago de Esperanto-Libro, kiu celis la lernadon de Esperanto de KEA-membroj per Legado-Kampanjo organizita de Libroservo de KEA

de marto ĝis novembro, 2019, KEA premiis 'Legantojn de la Jaro' al 7 personoj el la aliĝintoj kun prezento de recenzoj. La organizantoj deziris, ke pli da membroj aliĝu al la kampanjo en 2020.

Rondo Amuze kaj Arirang Grupo gratulis la 160an datrevenon de nia majstro L. L. Zamenhof per belaj kantoj kaj muzikludoj, kaj la ĉeestantoj ja amuziĝis de la agrabla atmosfero.

- 한국에스페란토협회(KEA)는 12월 15일 오후 3 시에서 5시 30분까지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자멘호프박사 탄신 160주년' 기념행사를 '제2회 에스페란토 책의 날'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수도권 외에도 전주, 밀양, 창원 등에서 57명 (일본 NAKADA Hisato 포함)이 참석하였다.

**1부 기념식 (자멘호프박사 탄신제, 사회 허성):**  
"La Espero" 제창에 이어 자멘호프박사의 약력 소개 (정병미 낭독), 기념 식사 (회장 서진수), KEA 명예 회장 추대 (이중기, 이영구)<sup>1)</sup>, 감사장 수여 (김우선:



Honoraj prezidantoj de KEA kun prezidanto de KEA

'이종영 청년후원 기금'<sup>2)</sup>에 5백만원 후원), 서진수 신임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상임/비상임이사, 감사, 사무국장 등 전체 KEA 임원에게 임명장 수여, 2019년 신입회원

- 1) 이중기: 21대 역임 / 이영구: 22대, 25대, 26대 역임
- 2) 2008년 7월 12일, 고 이종영 명예회장 유족 1천만원 기부 / 2012년 10월 12일, 김우선(출판영상위원장) 제안으로 KEA 이사회가 '이종영 청년운동후원회'를 결성하기로 함 / 2012년 11월 30일, '이종영 청년운동후원회' 발족(기금 1천5백만원) / 위원장: 강현구, 위원: 김우선 송호영 임한우 조명자 / 기금조성내역: 고 이종영 선생 유족이 기부한 1천만원 원리금과 기부금 4,262,072원(박화중 100만원, 익명 50만원, 김우선 2,762,072원) / 2019년 11월 28일, 김우선이 제공한 기부금 5백만 원으로써 기금 2천만원 확충.

인사(전경옥, 박해심, 양현준), KEA 창립 100주년 엠블렘 공모결과 발표,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KEJ) 깃발 전달 (회장 신현규), 2020년 국내외 에스페란토 행사안내 (강현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부 (KEA 창립 100주년 기념강연):** KEA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의 정원조 위원장이 “Gravaj pioniroj laŭ la periodoj”를 주제로 초기 서울 에스페란토운동을 이끈 김태경 선구자에 대한 강연을 했고, 전경덕 KEA 지도위원은 같은 주제로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한국에스페란토운동에 대한 강연을 했다.

**3부 (제2회 에스페란토 책의 날, 사회 박수진):** 리브로세르보에서 회원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하는 행사이다. 올해의 저자 소개 (박미홍, 김운누리, 장정렬, 최만원), 독서캠페인(3월~11월)의 독후감 심사결과 발표 (이용철), ‘올해의 독서인 상’ 시상, 독서캠페인 결과 보고 (박정숙), ‘제2회 에스페란토 책의 날’ 도서기증자 소개 (최숙희), 2020년 제3회 독서캠페인 안내 (이용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올해의 독서인 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자멘호프 상 : 박수진 (⇒ 16쪽)
- 김억 상 : 이충원
- 안우생 상 : 양현준
- 칼로차이 상 : 박정숙
- 율리오 바기 상 : 정다운, 최영희
- 윌리엄 올드 상 : 박기완

**4부:** ‘Rondo Amuze’(지도 전경옥)의 합창과 ‘Arirang Grupo’(지도 이남행)의 연주로 참가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 대부분은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 Ĉefaj Eventoj de Korea Esperanto-Asocio en 2020

- 2020년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주요행사 -

Kiam		Kio	Kie
Jan.	11	Novjara salut-kunveno (새해인사 모임)	KEA-oficejo
Feb.	22~23	Vintra Kurkunveno de KEA (전국겨울강좌 / KEA 대의원 총회)	Yuseong Junulara Gastejo, Daejeon
Mar.	28~29	40a Namkang Esperanto-Lernejo (40회 남강학교 봄학기)	Namkang Seowon, Cheongdo
Apr.	11	103a Memortago de Zamenhof (자멘호프박사 서거 103주년)	KEA-oficejo
Maj.	2~5	15a Internacia Esp.-Renkontiĝo de Meditado (16회 국제선방)	Uin Trejnejo de Ŭonbulismo, Gangneung
	16	21a Tago de Pioniro (21회 선구자의 날)	KEA-oficejo
Jun.	27~28	Somera Kurskunveno de KEA (전국여름강좌)	Yuseong Junulara Gastejo, Daejeon
Jul.	11~18	76a Internacia Junulara Kongreso (76회 세계청년대회)	Someren, Nederlando
Jul.	25~1	53a ILEI-Kongreso (53회 세계에스페란토교육자연맹 대회)	Kebeko, Kanado
Aŭg.	25~1	93a SAT-Kongreso (93회 세계무민족성협회 대회)	Bjalistoko, Pollando
Aŭg.	1~8	105a Universala Kongreso de Esperanto (105회 세계대회)	Montrealo, Kanado
Okt.	9~11	52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52회 한국대회)	Seulo, Koreio
Nov.	14~15	41a Namkang Esperanto-Lernejo (41회 남강학교 가을학기)	Namkang Seowon, Cheongdo
Dec.	12	161a Zamenhof-Tago / 3a Tago de Esperanto-Libro (161주년 자멘호프박사 탄신제 / 3회 에스페란토 책의 날)	Nedecidita



## La 8a Komuna Staĝo de GwangjuJeonnam·Jeonbuk-filioj – 29~30 nov. 2019, Manduksan Trejnejo en Jinan –

LEE Hyunmi (Esther)

Ripetante la Staĝon partoprenantoj iom post iom multiĝas. En la 8a Komuna Staĝo de GwangjuJeonnam·Jeonbuk-filioj<sup>3)</sup> troviĝis 31 personoj inkluzive de du tajvananoj kaj du ĉinoj. Dank' al ilia pasio lernema jenaj programeroj glate plenumiĝis.

La 1a tago: Kantado·Sinprezento(gvide de Esther), Raporto(Hajdi), Kartludo(Hela), Manĝetoj kaj Babilado.

La 2a tago: Jogo(Yvonne), Prezento 1(Minmin), Prezento 2(Liru), 3 Budoj, Ekskurso.

Dum la programo komencantoj estis tre kuraĝaj je la uzado de Esperanto. Ili sinprezentis tiel lerte kaj amuze, ke ĉiuj ĉeestantoj surpriziĝis.

Hajdi raportis sian sperton en la 106a Japana Esperanto-Kongreso, okazinta en la 12a~14a de okt. en Saitama. Ŝi entuziasme esprimis profundan emocion de japanaj esperantistoj.

Por Kartludo ĉiuj dividis sin en 3 grupojn laŭ la lingva kapablo. Ŝajnis interese por ĉiuj, precipe komencantoj. Ili diris, ke la ludo helpis la lernon de Esperanto facile kaj ĝoje.

Matene de la 30a, kelkaj promenadis kaj pli da personoj jogis gvide de Yvonne el Tajvano, tamen nur virinoj. Sinsekve en Prezento 1, la preleganto Minmin temis pri 'Neceseco por klasifiki forĵetaĵojn & Altgrada reutiligo'. Ĉar nuntempe la malpuriĝanta medio, ekz. la tero, maro, aero ktp, estas tre serioza, partoprenantoj sincere aŭskultis la ŝian

3) Ĝis la 7a, la nomo estis Renkontiĝo de Gwangju Jeonnam-filio kaj Jeonbuk-filio.

kun granda intereso.

En Prezento 2, prelegis Chen Liru el Tajvano, invitita de GwangjuJeonnam·Jeonbuk-filioj por la Staĝo, pri la temo 'Mia Zamenhofa strato kaj mia lando'. Por tio multe da informoj ŝi preparis kaj ili sufiĉe interesis la ĉeestantojn, tamen bedaŭrinde tempo mankis.

La Budojn konsistigis 3 partoj: Steltrikado (Esther), Mia planetario kaj karaktero (Stela), Balonarto (Alteno). Ĉiuj ridegante kaj babilante ĝuis la tempon.

Por la Ekskurso ni vizitis la monton Mai tre belan ankoraŭ kun ruĝaj-flavaj folioj aŭtunaj, malgraŭ jam vintro. Ni promenadis sunbrilantan vojon tra la arbaro ĝuante la admirindan pejzaĝon. Kaj bedaŭrante, ke mankas tempo por sufiĉe ĝui la Staĝon en tiel bela loko, ni adiaŭis unu al la alia kun la promeso renkontiĝi en la 9a Komuna Staĝo, 2020.

– 2019년 11월 29~30일 전북 진안 만덕산수련원에서 제8차 광주전남지부·전북지부 공동연수가 열렸다. 2016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광주전남지부와 전북지부를 오가며 지부 회원들의 친목과 에스페란토 실력향상을 위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횟수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카카오톡 그룹에 50여명 이상 모였고, 대만 2명, 중국 2명을 포함하여 34명이 신청하였으나 불참 3명으로 최종 31명이 참가했다. 제7회까지의 명칭은 Renkontiĝo de GwangjuJeonnam-filio kaj Jeonbuk-filio 였으나, 8회부터는 Komuna Staĝo de GwangjuJeonnam·Jeonbuk-filio로 하기로 했다.

### 프로그램

29일 저녁, 훈련원의 정성 가득하고 맛깔스런 저녁식사를 시작으로 참가자 전원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는데, 광주전남지부에서 참가한 초보자들인 이순이, 양정희, 김란심님의 유창하고 당당함과 순천에서 온 배운 지 2주가 되었다는 이서호 학생의 자기소개는 모두의 박수를 받을 만했다.

이어서 20여 년 만에 다시 에스페란토를 찾아오신 이순이님의 106차 일본에스페란토대회 참가기를 들었다. 초보자의 눈으로 경험한 행사에서 에스페란티스트들의 따뜻한 환대와 애정에 깊은 감명을 받은 발표자의 열정에 듣는 이들도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뜨거워진 열기는 이어지는 카드놀이에서 더해졌다. 이정희님의 진행으로 참가자들은 수준별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룹별로 두 가지씩의 카드놀이를 즐겼다. 특히 초보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 단어 습득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는 반응이었다.

참가자들의 에스페란토를 향한 열정은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전북지부에서 준비한 다과와 참가자들이 한 손 두 손 들고 온 귀한 간식들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만난 이들도 처음 온 이들도 대만의 Liru, Yvonne와 중국의 Zhang Wei, Harpina 등과 어우러져 어느 때보다도 에스페란토 대화가 활기찼고, 공식모임이 끝난 후에도 어느 방에선가 웃음소리와 함께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30일 이른 아침, Yvonne의 진행으로 요가수업이 있었다. 어려워 보이는 동작들도 이끄는 대로 하다 보니 어느새 몸이 풀려 자연스러워졌는데 음악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들만으로도 아침 운동이 충분했다.

Prezento 1에서 민현경님의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재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여서인지 모두가 귀 기울여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페포스터로 종이접기를 해서 노트표지 만들기 체험을 했다.

Prezento 2는 Liru의 '대만 에스페란토운동과 자신의 에스페란토 발자취'에 대한 것이었는데 1시간이



너무 짧을 만큼의 많은 준비를 엿볼 수 있었고, 에스페란토에 대한 열정을 전달하고 싶은 발표자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풍선아트’, ‘나의 별자리와 성격’, ‘초록별 뜨개질’ 등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구역에 적절히 흠어져 참여했는데, 시간이 짧아 3가지를 다 체험하지 못해 아쉬워하였다. 모두에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 소풍

단체사진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진안 마이산으로 소풍을 갔다. 주차장에서 탑사까지 걸어서 30여 분 동안 따스한 햇살 아래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우고, 문화해설사에게 설명을 들으면 한 명씩 외국 에스페란티스토에게 통역을 해 주었는데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가을 풍경을 아직도 품고 있는 탑사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은 지친 듯 했지만 모두의 표정은 밝고 활기찼다.

### 마무리

이번 연수에는 특별히 대만의 Liru를 초대했는데, 이를 위해 전북지부와 광주전남지부의 여러분들이 기부금을 쾌척해 주어서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이 초대는 2월에 개최될 대만과 두 지부와의 공동연수를 앞두고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에스페란토로 진행되었고, 또한 4명의 대만, 중국 참가자들로 인해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에스페란토를 사용하게 되었다. 초보자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약간의 자극을 받은 듯, 전체적으로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짧았지만 즐거움 가득했던 1박 2일 일정을 마치며, 제9회 공동연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작별을 나누었다. ☺

## 2020 Komuna Staĝo de Koreaj kaj Tajvanaj Esperantistoj

Kiam(기간): 6~9 februaro 2020  
2020년 2월 6일(목) ~ 9일(일)  
Kie(장소): Pingtung, Tajvano (대만 핑퉁)

## Amikoj de Zamenhof (1구좌 50만원, 2020년 1월 20일까지)

2017년: 이영구(4.8)	조성호(1)	손호철(1)
박화중(0.8)	김영명(0.2)	
2018년: 이영구(4.8)	박화중(2.4)	유필근(1)
조성호(1)		
2019년: 이영구(3.2)	경남지부(1)	박강문(1)
조성호(1)	이길성(0.52)	
2020년: 박화중(1.8)	이길성(0.2)	박정숙(0.1)

※1998년부터 자료는 2019년 1/2월호 26쪽 참조

## 2020 Vintra Kurskunveno de KEA (2020년 전국겨울강좌)

Dato(날짜): 22~23 februaro 2020  
(2020년 2월 22~23일)

Loko(장소): Yuseong Junulara Gastejo, Daejeon  
(대전 유성유스호스텔)

Kotizo(참가비): plenaĝulo(성인) 50,000₩  
어린이·학생·청년·장애인: 30,000₩  
(비회원: 5,000원씩 추가)

Ekzameno: plenaĝulo(성인) 10,000₩  
(시험) lernanto(학생) 5,000₩

## La 40a Namkang Esperanto-Lernejo (40회 남강학교 봄학기)

Dato(날짜): 28~29 marto 2020  
(2020년 3월 28~29일)

Loko(장소): Namkang Malnova Lernejo, Cheongdo  
(청도 남강서원)

Kotizo(참가비): 교재 포함, 현장 5,000원 추가  
plenaĝulo(성인) 45,000₩  
lernantoj(대학생 이하) 30,000₩

납부: 대구은행 / 18870714 / 곽중훈-남강에스페란토  
문의: 박용승 / 010-3772-0230

● 1회 서울·상하이 에스페란토포럼

## La 1a Esperanto-Forumo inter Seulo kaj Shanghai

PARK Haesim (Tamara)

Inter la 17a kaj la 22a de dec. 2019 okazis “La 1a Esperanto-Forumo inter Seulo kaj Shanghai” en Ŝanhaja Internacia Studa Universitato de la ĉina urbego Ŝanhajo, kaj en la urboj Ŝanhajo kaj Hangzhou. La ĉefa forumo okazis en la 21a de decembro kun la temo “Historio kaj Nuntempa Tendenco de Loĝejo de Koreio kaj Ĉinio”. Seula Filio de Korea Esperanto-Asocio kaj Ŝanhaja Esperanto-Asocio konsentis okazigi la forumon ĉiujare ŝanĝante la rolojn de invitanto kaj vizitanto. La forumon 13 koreaj esperantistoj kaj 39 ĉinaj esperantistoj ĉeestis kaj interŝanĝis opiniojn pri la forumo kaj sukcesa ĝemeligo.

La prelegantoj entuziasmis prezenti unikajn enhavojn: d-ro Wang Minghao el Ĉinio pri “Ŝanĝo de Loĝejo en Ŝanhajo”, d-ro Gim Inhong el Koreio pri “Korea Tradicia Domo 'Hanok'”, s-ro Zhang Han pri “Ŝanĝo de Ŝanhajo en miaj okuloj kiel la

nova ŝanhajano”, korea grupo el 5 personoj pri “Nuntempa Tendenco de Korea Loĝejo-Apartamento”, prof. Zhou Tienhao, prez. de ŜEA, pri “Ŝanĝoj de Loĝejprezroj de la jaro 1978 ĝis nun en Ŝanhajo”, kaj prof. So Jinsu, prez. de KEA, pri “Nuntempa Tendenco de Koreaj Loĝejoj kaj Registara Politiko”.

**En la 17a:** Tre viglaj 13 koreoj flugis al Ŝanhajo en ekscito. Ĉe elirejo de flughaveno nin atendis s-ro Bao, profesia ĉiĉerono, kaj d-ro Wang Minhao, eksprezidanto de ŜEA. La bonvenigaj kaj varmegaj ridetoj de tiuj 2 kolegoj jam nin komfortigis je la komenco de forumo. Bao enkondukis 6 tagajn itinerojn kaj Ŝanhajon (areo: 6,000km<sup>2</sup>, loĝantoj: 20 milionoj). Ni unue vizitis la domon de Provizora Registaro de Korea Respubliko. La patriotoj, vere sindediĉintoj al sia patrujo, estas ja ĉiam respektindaj. Mi sentis senfinan dankemon al la revoluciuloj,



kiuj klopodis por la nacia sendependeco ol propra komforteco. En la vespermanĝo aranĝita de ŜEA, tuj post alveno al la loĝejo, ni 13 koreoj kaj 4 ŝanhajanoj ĉeestis, kaj la bongustaj manĝaĵoj sufiĉe feliĉigis nin. Sinprezentante kaj kune drinkante, ni jam havis tre ĝojan tempon en la unua vespero.

**En la 18a:** Pluvetis, sed ni ĝoje turismis en Yi Ĝardeno, konstruita en Ming–dinastio. Pri la ĝardeno ni aŭdis, ke komenca konstruinto faris artajn montetojn kaj plantis multajn arbojn por vivi kun siaj gepatroj, kiuj ne kutimiĝis al la urba vivo. Post la tagmanĝo ni vizitis la historian muzeon, kie ni estis tre impresitaj pro la bronz–epokaj trezoroj. Al mi persone plej plaĉis la kaligrafiaĵoj kaj sigeloj ekspoziciitaj sur la 4a etaĝo. Je sunsubiro, ni iris al Puxi por vidi vesperan kaj noktan pejzaĝojn. Sur la rivera bordo troviĝis alta monumento por memori dek milojn da forpasintoj dum la milito kontraŭ Japana Imperialismo. Mi forte sentis, ke perforto kaj milito devas malaperi el la mondo kaj esperantistoj pacamantaj devas klopodadi por tion plenumi. Vespermanĝo estis regalita de prez. Zhou Tienhao, kaj ĉiuj manĝaĵoj vere bongustis kontraŭ oleemo.

**En la 19a:** Frumatene je 06:30 ni hastis fronti al Hangzhou per metroo kaj ekspresa trajno. La sperto uzi la publikajn transportilojn speciale kolorigis nian vojaĝon en Ĉinio. Kvankam vetero ne estis bona, la klarigo de Bao kaj la beleco de Xi(西)–lago donis al ni komforton kaj ĝojon. Veturante per ŝipeto, ni ĝuis la ĉirkaŭajn pejzaĝojn de la lago en la pluvado. Poste ni vizitis la pagodon ‘Lie Feng’ kun interesa legendo, nome amrakonto de belaj viro kaj virino, kiu origine estas serpento. Hangzhou estas fama pro verda teo, kaj ni vizitis Hupao–parkon por trinki bonkvalitan teon. Pejzaĝo je krepusko estis superforta por niaj okuloj. Pura akvo kaj freŝa aero igis nin sentemaj kaj feliĉaj.

Revenonvoje ni rekontis unu lokan esperantiston ĉe la stacidomo Hangzhou.

**En la 20a:** Matene prof. Wang Minhao gvidis nian grupon al Pudong, kiu estis kamparo antaŭ 30 jaroj, sed nun kun tre altaj kaj elstaraj konstruaĵoj inkluzive plej altan ‘Shanghai Tower’(119 etaĝoj). Laŭ lia klarigo, “Antaŭe ŝanhajanoj diris, ke unu lito en Puxi superas ol 3 ĉambroj en Pudong”. Sed nun la situacio absolute ŝanĝiĝis. Kaj ĉiuj ŝanhajanoj volas loĝi en Pudong, sed la prezo de la domoj rapide altiĝas same kiel tiuj de Gangnam en Seulo. Tagmeze ni vizitis la artan muzeon ‘Long=Drako’, kie ni havis tre feliĉan tempon aprecante la artaĵojn kun profesia klarigo de d-ro So Jinsu. Dank’ al la eminenta specialisto, mi persone sentis miajn artajn celojn vivantaj kaj okulojn vaste malfermitaj. Kaj la vespermanĝo estis plej bongusta. Tipa ‘rivera krabo’ el Ŝanhajo atendis nin sur la tablo en la luksa restoracio de la centro de Ŝanhajo. Diversaj drinkaĵoj kiel biero kaj flava vino ankaŭ ĝojigis nin. Ĉiutagaj manĝaĵoj dum la forumo estis tiel bongustaj, ke mi devis ofte kontroli la zonan.

– 2018년 11월부터 야심차게 준비해온 2 Soj-a Forumo de Esperanto(Soj의 S는 Seulo와 Shanghai의 첫 자로서 서울/상하이)가 공동 주최하는 에스페란토포럼을 뜻함)의 1차 행사가 2019년 12월 17일~22일 중국 상하이 외국어대학교, 그리고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두 도시는 매년 교대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은 자매결연이라는 큰 임무와 에스페란토를 즐기자는 욕구가 모두 충족된 여행이었다.

천생 신사이며 목소리도 굵직한 왕 민hao 교수님의 밝은 미소, 빨간색 옷을 좋아하는 조우 티엔hao 회장님의 짧은 웃음소리, 내몽고의 야성미가 매력적인 중국 젊은이 Perlo 알렉스, 상하이의 새내기 아기 아빠 장한, 생글생글 귀요미 바오, 처음 만났지만 이름만 들어도 금세 그리워지는 나의 중국 친구들이 되었다. 2020년 10월 한국에스페란토 1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될 2차 포럼이 벌써 기다려지고 마음이 설렌다. ☺

# Kiel iris KEJ en 2019? - 2019년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활동 -



##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4)

2019년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이하 ‘청년회’)는 근간을 다지고 다가올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38차 한·일·중·베 공동세미나(Komuna Seminario, 이하 ‘KS’) 준비를 위한 제도 정비를 중심 사안으로 다루었다.

1) **교육:** KS 및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여 신현규 회장의 주도로 현재까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이루어졌다. 각 교육은 매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5회 내외를 기본 커리큘럼으로 하며 문법과 어휘, 회화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환경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거리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교구 개발 또한 역설되고 있다.

대학 동아리 차원에서는 보드게임과 영상자료, 유인물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박상현 부회장이 OLIVO 부회장으로서 공동 개발 및 진행에 힘쓰고 지난 가을학기 남강학교에서 오희연 부회장이 OLIVO 회장의 자격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2) **모임:** 교육 모임을 청년회 외에 서울지부, 대학 동아리 등 여러 모임에서 온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이를 통해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조직에 청년회가 직접 얼굴을 비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박장호 총무가 집중적으로 교통을 지원하였다. 서울지부의 모임과 Rondo Amuze의 거리공연, 2회의 남강학교(38회, 39회)와 2019 전국 겨울/여름강좌에 참가하였다.

청년회가 조직한 것은 8월 24일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KS 준비모임이었다. 2020년 KS 준비를 위하여 각계의 선후배를 모은 모임으로, 참가자는 강현구, 김영룡, 김영웅, 박상현, 박장호, 서진수, 성민우,

신현규, 오희연, 이남행, 이영구, 이현숙, 전민정, 전홍남, 정다운, 정유로, 최세린이었으며 후원자는 김우선, 박정숙, 송호영, 이현숙이었다. 위 모임을 통해 약 40년 전인 1982년에 시작된 KS라는 행사가 어떤 취지로 ‘모임’이나 ‘대회’가 아닌 ‘세미나’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으며, 차기 대회를 준비해야 할 청년회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신 선배 동지분들과 후배 동지분들이 서로 섞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TEJO 전·현직 임원과 한국 청년의 소모임이 있었다. 정유로 TEJO 임원의 주도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Karina Oliveira와 OLIVO의 만남이 있었고, 2020년 1월에 TEJO 전 임원인 Konstanze Schönfeld(Tuška)와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2019년의 특징적인 점은 2017년 세계대회(서울) 때보다도 더 청년회 임원 사이의 회의가 잦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의 내용은 비정기적으로 묶음으로 정리되어 청년회에 보고되며 청년회원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다음 임원 모임/회의에 반영되는데, 이를 통하여 유연한 청년회 운영이 가능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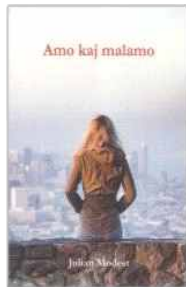
3) **국제 활동:** 기존에 1인 체제였던 부회장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업무를 분리 처리했다. 국제 담당 오희연 부회장은 정유로 TEJO 임원과 Konstanze TEJO 전임원의 도움으로 Komitatano A가 되었으며, 서진수 KEA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에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청년회가 함께 준비하는 KS를 꾸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4) **재정:** 재정 상태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8월의 KS 준비 모임 이후로는 큰 입출금이 없는 상태다. 2020년에는 KS라는 국제 행사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입출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n la jaro de muso prosperon kaj bondeziroj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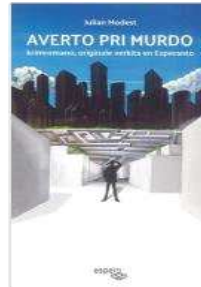
4) 회장 신현규, 부회장 오희연(국제), 박상현(국내), 총무 박장호

## 새로 들어온 책



### Amo kaj malamo (원작 소설)

지은이: Julian Modest  
출판사: s.e., 2019년  
111쪽, 13,000원  
내 용: 다작(多作)으로 유명한 불가리아 작가의 범죄소설. (초/중급 수준)



### Averto pri murdo (원작 소설)

지은이: Julian Modest  
출판사: espero 2018년  
96쪽, 12,000원  
내 용: 흔적없이 사라진 삼촌을 찾아 달라는 조카의 부탁으로 범인을 쫓는 사설탐정.



### Ĉasisto de sonĝoj (원작 단편소설)

지은이: Julian Modest  
출판사: E,Libera 2019년  
108쪽, 13,000원  
내 용: 27편의 단편소설과 1편의 에세이 모음



### Lasu min paroli plu! (독본)

지은이: Claude Piron  
출판사: Fonto, 2005년  
125쪽, 25,000원  
내 용: Gerda Malaperis와 병행하여 단어와 문장을 익히는 학습용 독본(초/중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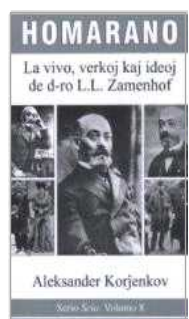
### Ili Kaptis Elzan (원작소설)

지은이: Claude Piron  
출판사: Fonto, 2007년  
79쪽, 16,000원  
내 용: 저자가 초보자를 위해 쉽게 쓴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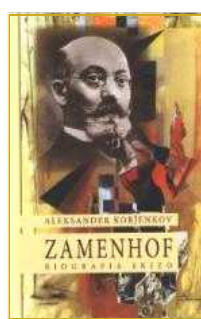
### Vere aŭ fantazie (독본)

지은이: Claude Piron  
출판사: Fonto, 2007년  
207쪽, 27,000원  
내 용: 세계 여러나라의 신기한 이야기 모음. 단계적으로 단어를 익히도록 저술.



### Homarano (자멘호프 전기)

지은이: Aleksander Korĵenkov  
출판사: Sezonoj/LEA 2011년(2판)  
359쪽, 42,000원  
내 용: (부제: 자멘호프 박사의 생애, 저술, 사상), 자멘호프 박사에 대한 새로운 전기



### Zamenhof-skiza biografio (자멘호프 전기)

지은이: Aleksander Korĵenkov  
출판사: Sezonoj/LEA 2010년  
64쪽, 11,000원  
내 용: 비에스페란티스트를 대상으로 여러나라 말로 번역할 목적으로 Homarano를 간추린 자멘호프 전기.

## Konsolvirinoj de Japana Imperia Armeo<sup>5)</sup> – Mesaĝo al vi dekeljaruloj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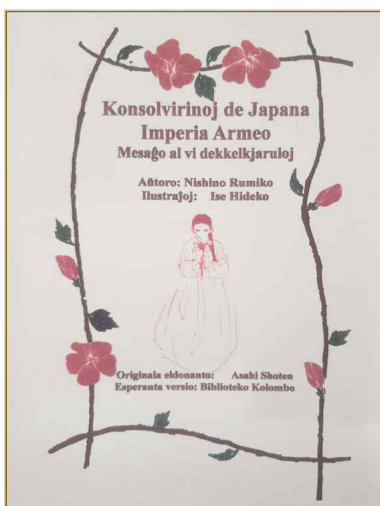
PARK Sujin (Elina) / redakciano de KEA

La viktimoj de la urbo Hirosima, Japanio, atombombita de Usono en 1945, fine de la 2a Mondmilito, jam multe forpasis kun la paso de tempo. Do por sciigi, kiel terura estis la atombombo, al tiuj kiuj vizitas Pacan Muzeon en Hirosima, la urbo edukis volontulojn pri la katastrofo ekde 2012. Kaj nun la edukitoj kun licenco nomata 'Heredito de atombombito' agadas ne nur en la muzeo ankaŭ ie ajn.

Kompare kun tio, Japanio ankoraŭ ne faras sinceran pardonpeton kun kompenso al koreaj viktimoj, ne-esprimeble suferintaj dum la japana kolonio, ĉefe konsolvirinoj altruditaj al japanaj armeoj por la soldatoj. En la situacio multaj el ili jam maljuniĝintaj ĉieleniris.

Opiniante, ke ankaŭ ni bezonas la sistemon kiel Herediton de atombombito, por ke niaj jungeneracioj ne forgesu pri tiuj virinoj, mi legis la libron '*Konsolvirinoj de Japana Imperia Armeo*'. Ĝia japana aŭtoro Nishino Rumiko hezitis uzi la vorton 'konsolvirinoj', kiu estas esprimita anstataŭ 'seksosklavinoj' de Japanio por kovri la veron, ke fakte ili spertis tute malhonoran mondon kiel virinoj sub la dolĉa vorto 'konsolo', kiu signifas konsole trankviligi koron.

5) Recenzo de la premiito por 'Legantoj de la Jaro' en La 2a Tago de Esperanto-Libro okazinta kun La 160a Zamenhof-Tago.



**Verkisto: Nishino Rumiko**  
**Eldonejo: Biblioteko Kolombo**  
**1993, 116 paĝoj, 10000 ŭnoj**

Laŭ tiu libro, Japanio ne vere pardonpetis al ili. En 1992, la ĉefministro Miyazawa vizitis Koreion kaj petis pardonon de la viktimoj, tamen nur buŝe, ĉar la oficiala dokumento pri ili estis trovita. Poste li neniam menciis pri la kompenso por la virinoj, kaj ĝis nun la sinteno de japana registaro pri la afero estas daŭre ŝanĝanta kontraŭ la vero.

Antaŭ unu monato mi spektis muzikteatron, kies titolo estas "La ŝipo Ukisima (우키시마호)"<sup>6)</sup>. Memore al la 100-jara jubileo (2019) de "Sendependa Movado de la 1a de Marto" kontraŭ Japanio en 1919 kaj la juĝa decido pri kompenso kaj pardonpeto de Japanio al la viktimoj en korea tribunalo en 2018, tiu ĉi muzikteatro estis senpage prezentita sur la placo Gŭanghŭamun kaj kelkaj esperantistoj spektis ĝin eĉ tremante en malvarmo. De la komenco la ĉefa popolkanto Arirang, kiu bone esprimis la malĝojon de koreoj en tiu malfeliĉa tempo, faris min ploranta.

6) Temas pri aliaj viktimoj. Post korea sendependiĝo de Japanio, Japanio devis sendi koreojn el Japanio al Koreio per la ŝipo Ukisima. Tamen sur la maro la ŝipo kun 7000 koreoj eksplodis. Onidire ĉ. 5000 koreoj mortis. Japanio diras, ke tio estis akcidento, sed neniu kredas tion.



La aŭtoro Nishino diris en la libro, ke ŝi decidis eldoni la libron ‘*Konsolvirinoj de Japana Imperia Armeo*’, kiam Ishikawa Sae, 12-jara knabino, petis de ŝi helpon, por ke ŝi kuraĝe povu skribi pri la armeaj konsolvirinoj el Koreio en sia lerneja ĵurnalo, por ke la samklasanoj sciu pri la viktimoj, ĉar tio estas la problemo rilata ankaŭ al la infanoj, kiuj estas ankaŭ virinoj kaj homoj. La temo de ŝia skribaĵo estas “Ĉar ni estas infanoj”, kaj en ĝi ŝi diras, “Ĉar mi estas infano, ĉar mi estas virino, kaj ĉar mi estas homo!”

– 최근 ‘*Konsolvirinoj de Japana Imperia Armeo*’<sup>7)</sup> (Nishino Rumiko 저)와 ‘*Atestas atombombito koredevena*’<sup>8)</sup>(OSIOKA Taeko 저)를 읽으며 전쟁과 평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 두 권은 가볍고 얇은 책들이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부로 고통받은 한국 여성에 관한 이야기와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에 관한 무거운 내용으로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일본은 원폭 피해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2012년부터 원하는 사람들에게 3년간 교육을 한 후 “*Heredanto de atombombito*”라는 자격증을 주어, 히로시마에 있는 평화기념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이나 학교, 모임 등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알리고자 한다.

*Atestas atombombito koredevena*의 저자 OSIOKA Taeko도 자격증 취득자로서 원폭 피해자인 박남주(이민 2세)님의 대변인으로 2018년부터 활동을 한다. 구사일생으로 핵폭탄으로부터 목숨은 구했지만 몇 차례의 암 수술을 받고 힘겹게 살고있는 박남주님은 전쟁은 승패를 떠나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할 수 없다는 큰 메시지를 전달했다.

*Konsolvirinoj de Japana Imperia Armeo*는 원자폭탄에 대한 원인은 묻어두고 그 피해에 대해서만 알리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과는 대비되는 한국 위안부들의 고통을 다루었다.

‘Ne fermu la okulojn ĝis la fino’

7) 1993년 발행, Biblioteko Kolombo, 116쪽, 10000₩

8) 2018년 발행, Hiroshima Esperanto-Societo, 40쪽, 600₩

‘끝까지 눈을 감지 마세요’라는 이 말은 12살 일본 소녀 Ishikawa Sae가 학급신문 특별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쓴 기사의 첫 문장이다. 이 소녀가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 중에 자기 또래의 어린 소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이는 소녀이자 여성인 자신과도 관련이 있고, 또한 인간의 문제라 생각하고 학급신문에 실기 위해 저자 Nishino Rumiko에게 도움을 구하자, Nishino 작가는 이 위안부 문제를 책으로 출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Sae는 “Ĉar ni estas infanoj”(우리는 어린이잖아요)라는 제목으로 특별호를 발행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다음날, 한 소년이가 다가와 신문을 던지며 ‘이건 반민족행위야’라고 했다고 한다. 일본은 전쟁범죄를 저지르던 때에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해 반민족행위자라고 했다. 만약 그 의미라면 반민족행위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Sae는 절대 굴하지 않았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뵈고 인터뷰한 내용을 실기도 하고, 어디서 정보를 찾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상세한 설명으로 읽는 중간 중간에 숨을 고른 후 읽어야 할 때도 있었고, 책 읽는 동안 그 당시에 발행된 “*국화와 칼*”이라는 책도 함께 읽게 되었는데, 우리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지낸 시간들이 아깝고, 생각 없이 지내 온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점령 후 이를 발판으로 전쟁을 치르고, 전쟁 중인 일본군을 위해 한국의 소녀들을 강제로 또는 기만해서 전쟁터로 끌고 가 그들의 성욕받이를 시켰고 심지어 학살도 일삼았다. 일본은 자국 여성들도 데리고 갔지만, 그런 일을 업으로 하는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 별도로 모집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 여성들도 함부로 겁탈했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부대 내에 감금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소녀들에 대해서는 부대별, 지역별로 위안부 건물까지 지었다고 한다.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가? 1992년, 미야자와 수상이 방한을 위해 사과를 한 적이 있지만, 이는 위안부에 관한 공식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 돌아가서는 어떠한 배상도 없었다. 오히려 이미 1965년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국화와 칼’에서 보면, 2차 대전 패망 후 일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고 한다. 아직 전쟁터에 있던 일본군들이 전쟁포로가 되지 않고 죽기를 불사하고 싸울 것으로 예측했으나 순순히 연합군을 따르고, 일본 정부 역시 갑자기 친절하게 돌변했다고 한다. 바로 그 이중성에서 나오는 태도였다고 책에서는 말한다. 위안부 문제의 사과와 배상에 대해서도 한국 방문을 위해 대충 사과의 말을 전할 뿐, 후속조치 없이 계속되는 말 바꾸기도 그 이중성에서 나오는 것 같다.

금년 10월 말, 어느 지역 기관지에 일본인이 쓴 기사를 보고 나는 너무 화가 났었다. 그는 패망 후 도주를 시도하던 만주지역의 일본 여성들을 러시아 군인들이 강제로 겁탈한 것을 알리기 위한 소녀상을 옆에 세울 것을 생각했었다고 한다. 어느 소녀상 옆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소녀상 옆이 아니었을까? 결국은 하지 않았다 한다. 그의 이모는 원폭 피해자라 한다. 식사를 준비하던 자세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이 일본에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모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맞서지 말고 한국이 앞서서 평화의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는 내용이였다. 이게 글인지 낙서인지, 논리 자체도 이상하고, 심지어 이미 끝난 일이니 덮어두자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 전, 엄마부대라는 단체가 “딸이 위안부에 끌려 갔어도 일본을 용서한다”는 풋말을 들고 시위하는 해괴한 일이 있었다. 왜 딸인지 모르겠다. 저 일본인과 엄마부대는 본인들이 원폭 피해자이고 위안부 피해자였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많이 연로해지시고, 이미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대변해 몇 안 되는 분들이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귀 닫고 눈 감은 저들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6살 조카만도 못한 것 같다. 아직 가식을 부릴 줄 모르는 12살짜리 일본 소녀 Ishikawa Sae는 이 책에서 “Ĉar mi estas infano, ĉar mi estas virino, kaj ĉar mi estas homo!”(나는 어린이고 여성이고 인간이잖아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

## ● Enlande

# 국내소식

### 2019년 12월 KEA 이사회

일시: 2019년 12월 15일 11:00~12:30

장소: 서울지부 사무실

참석: 서진수 회장, 김인홍 부회장, 이남행 이용철 이현숙 장영은 최유식 최정옥 한숙희 이사, 강헌구 사무국장.

위임: 강병훈 오순모 정현주 부회장, 정희정 유영애 김주 이사

### [보고사항]

1. 재정보고: 10, 11월 가결산 재정보고 후, 1월 이사회에서 승인받기로 함.
2. 11월 1~14일: 임원변경 등기(서울지방법원)
3. 11월 11일: 2020년 전국겨울합숙(2020.2.22.~23)을 대비하여 대전 유성호스텔 예약(50명).
3. 11월 13일: 우크라이나에스페란토협회장 Euheno Kovtonjuk 협회 방문
4. 11월 18일: 사업자등록증 갱신(마포세무서), 출판사등록증 갱신(마포구청) / 문체부에 임원변경 등기부등본 등기우편 발송.
5. 11월 19일: 향촌기금 1/2와 이중영기금 재예치.
6. 11월 27일: 외국어대학교 에스페란토강좌 수강생을 위한 수료증 120매 제작.
7. 12월 4일: 이중영 청년후원기금에 김우선 자문위원이 500만원 확충.

### [안건사항]

1. 교육위원장에 이현숙 이사 임명, 정기대의원총회(2020.2.22.)에서 교육담당 부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함.
2. KEA 창립 100주년과 협회 발전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3,000만원을 목표액(사무실 이전 1,300만원, 100주년 연감 편찬 및 발간 1,200만원 등)으로 정하고, 기간은 2020년 3월 말까지로 함.
3. 비상임이사에 이현우 회원을 임명함.
4. 회계분리 요청(이용철 이사)에 협회 빈 통장 활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2020년 1월 KEA 이사회**

일시: 2020년 1월 11일 13:00~15:30

장소: KEA 사무실

참석: 서진수 회장, 오순모 부회장, 장영은 이용철  
유영애 한숙희 최정옥 이사, 사무국장 강헌구.

위임: 강병훈 김인홍 정현주 부회장, 김용진 김주  
이남행 이현숙 정희정 최유식 이사.

**[보고사항]**

1. 재정 보고: 10~12월 재정 보고.

2019년 12월 재정보고			
수입		지출	
임원회비	1,680,000	문영전도금(11월분)	500,000
평생회비		중식대	150,000
회원회비	270,000	건물관리비	244,680
기부금	1,650,000	진양상가 화장실 개보수공사	322,820
CMS.회비, 후원	72,000	통신비	32,460
도서판매	403,300	전자금융수수료	3,000
이자수입	92,466	우편료	530,040
		편집비	200,000
		소모품비	428,400
		기관지발행	700,000
		주민주	
		출장비	8,200
		CMS수수료	51,960
		이사회회비	90,000
		Zamenhof Tago 뒤풀이 보조	123,000
		평생회비기금전환(서영원)	1,000,000
		에스페로상금 1601호 임차료(12월)	
당월수입	4,167,766	당월지출	4,384,560
저원이월(경상비)	1,882,981	다음달 이월	1,646,187
수입누계	6,030,747	통장잔고	8,997,387

- 12월 2일: 기관지 361호(11/12월호) 발송(국내 410부, 국외 66부), 김우선, 조명자, 전대봉 협조.
- 12월 4일: 김우선 지도위원께서 후원하신 이종영 청년후원기금 500만원 입금처리.
- 12월 7일: 명예회장 추대패 제작(서진수 회장 동행)
- 12월 10일: 신입임원 임명장(33매) 제작.
- 12월 15일: La 160a Zamenhof Tago 기념행사를 서울시청 워크숍룸에서 진행, 57명 참석 / 경북지부는 21일에 포항 에스페로내과에서 진행, 12명 참석.
-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발송.
- 12월 18일: 진양상가 임차인에게 임차료 입금 독촉 내용증명 발송.
- 12월 30일: 부가세 신고업무를 세원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 월 10만원.

**[안건사항]**

1. 도서 및 문서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다.  
(위원: 강헌구, 김우선, 신종태, 이용철, 전경덕)
2. 제52회 한국대회 준비위원회: 강병훈 KEA부회장과 이남행 서울지부장이 협의하여 구성하기로 하다.
3. KEA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한글날을 적극 활용하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래에도 국제어는 살아남을 것인가?”란 주제의 특강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100년사” 강연을 실시하기로 하다. 포토존을 설치하기로 하다.
4. 금년 52회 한국대회에서 열릴 “제2회 상하이·서울 에스페란토포럼”에 대한 일정을 논의 하다.
5. KEA 10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 인사로서 UEA 회장, JEI 대표, 중국 대표를 초청대상으로 하고, UEA 회장에 2,000 달러, 중국 및 일본 대표에게 각각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다.
6. 52회 한국대회 주제를 “인공지능 시대의 인공어 에스페란토의 미래” (Estonto de Artefarita Lingvo ‘Esperanto’ en la epoko de Artefarita Inteligenteco) 로 결정하다.
7. Libroservo 및 출판관련 별도 통장을 개설하기로 하다. (국민 463501-01-081345)
8. “한국에스페란토운동 100년” 발행 편집비로 매월 200,000원을 집행하기로 하다.
9. 기타: 임원회비 미납자에게 납부사항을 분기별로 개별 안내하기로 하다.

**KEA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현황**

**7차 모임** (2019.12.15. 서울지부 사무실)

- 100주년 엠블렘: 서진수 회장이 맡기로 하다.
- 한국에스페란토백과사전: 10월말까지 PDF 전자책으로 편집, 2021년 4월 자멘호프서거 104주년에 맞춰 종이책 500부 출판 예정, 발행비 약 1000만원은 후원금과 광고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편찬위원회에서 도서명(백과사전 → 연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다. (이용철)
- 100주년 기념전시회: 대회기간 중 개인 소장품 전시 공간을 위한 장소 마련을 제안하다. (이남행)
- 이재현사전 개정: 마영태사전의 내용이 더 풍부하나 이재현 선생 아드님의 재정지원(2019년 11/12

월호 4쪽 3차모임 참조) 측면에서 이재현사전으로 하기로 하고, 재정지원에 대해 다시 확인하기로 하다. (허성)

- 중급 유튜브에스페란토강좌: 2월전까지 진행 예정, 비용은 재능기부로 처리하기로 하다. (허성)
- Lernu 번역: 번역자 등록 후 바로 시행 가능. (신현규)
- 예산: 사무실 이전과 100주년 기념출판으로 2300만원 예산, 후원금을 3000만원으로 정하고, 1~2월 내로 발표할 것을 제안하다. (최유식)

#### 8차 모임 (2020.1.11. 협회 사무실)

- 100주년 엠블렘: 준비된 3개의 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다. (서진수)
- 한국에스페란토백과사전: 도서 명칭을 '한국에스페란토운동 100년'으로 하기로 하다. 2021년 4월에 출판 예정이었던 종이책의 발행 시기를 'KEA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기는 제52회 한국대회 (2020년 10월 9~11일)에 맞춰 앞당기도록 계획하다. 이전 회의에서 협회 후원금과 광고수입으로 지출하기로 했던 발행 비용은 사전예약 등으로 충당하기로 변경하다. (이용철)

<오순모 / 100주년 준비사업회 사무국장>

#### 부산지부

<12월 11일>

- 신임지부장으로 조대환님을 선출하고, 부지부장을 대신하여 그동안 부산지부장을 역임한 분들을 위원으로 하는 자문단을 두기로 하다.

<1월 8일>

- 지부모임: 홀수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갖기로 하다.
- TERanidO는 기존 팀원들로 계속 진행하기로 하다.
- TERanidO 공부방: 2020년 1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18:00~20:30 동래시장 차방(김학용)에서 테라니도 편집 역량 강화 학습으로 진행, 지도 장정렬.
- 외부로부터 에스페란토강의 요청 시 강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지원자가 없을시 추천으로 정한다.
- PoMo(Projekto Mia)와 부산경남대회는 오기숙님을 준비위원으로 하다.
- 초급강좌, 시민강좌 등은 기존 관례에 준해 계속한다.
- 외국 에스페란티스토의 민박요청에 대한 지원업무는 김인혜님이 맡기로 하다. <유미경 / 부산지부 총무>

#### Lundo Verda

2018년 5월부터 청주에스페란토회에서 진행하는 학습모임이다. 매주 월요일 09:00~12:00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진행되며 장윤하, 김영순, 최은숙 회원이 참여하는데, 적은 인원이라 의사결정이 쉽고 빠른 장점이 있다. 교재 'MEMORI KAJ FORGESI'(Trevor Steele 저)를 읽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어 번역판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은숙>

#### 경남지부

2020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에스페란토 입문교육반 교육이 있었다. 진주 배영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류진숙(Saliko) 교장선생님이 지도하였으며, 정미숙, 김영숙, 김계자, 배기학 4명이 참가하였다. 마지막 날 오후 3시장은 박용승(Nema)님의 '구조적 문법' 특강으로 더욱 알차게 마무리 지어졌다.

<강병훈 / 경남지부 총무>

#### 일본 월년연수회

일본 에스페란토보급회(EPA) 주최로 매년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오모토 본부(가메오카)에서 열리는 월년연수회(Transjara Kurskunveno de Esperanto)에 한국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하여 23명이 참석했다. 총 120명 참석. 8개의 강좌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자유회화'를 신은숙님이 진행했다. 금년에도 JOZE Takehara님이 한국참가자들을 자택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다. <오순모>

#### 신입회원

- 엄춘영 (익산, 일반) : 최영희 추천
- 용미중 (순천, 일반) : 안정희 추천
- 이미지 (순천, 일반) : 안정희 추천
- 이기주 (경남, 일반) : 주중식 추천
- 김계자 (경남, 일반) : 류진숙 추천
- 정미숙 (경남, 일반) : 류진숙 추천
- 김인희 (일반)

#### 회원동성

- 공길윤: 장남 공가람 결혼, 12월 8일, 오쉐르웨딩홀

## 국의 소식

### UEA 대표의 유네스코총회 연설

2019년 11월 16일, 세계에스페란토협회(UEA) 대표인 프랑스의 Francois Lo Jacomo 님이 유네스코 총회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는 유네스코와 에스페란토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에스페란토로 발간되고 있는 Unesco-Kuriero도 소개하였다.

### UEAviva

세계에스페란토협회(UEA)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브로셔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 <https://www.youtube.com/UEAviva>

### 자그레브 대학 철학과에서 계획어(인공어) 강의!

자그레브대학 철학과 독일문학 전공학생들에게 10년 전부터 계획어(인공어) 강의를 계속되고 있다. 2019/2020학기에 31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이 강의에는 에스페란토에 대한 비교 언어학 관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iropa Bulteno* 2019년 11월호)

### 49회 세계 어린이·청소년 에스페란토대회

기간: 2020년 8월 1~8일

장소: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대회장에서 8분 거리)

참가비: 숙박과 관광 포함.

· 1월 31일까지 (A국가 550€, B국가 410€)

· 3월 31일까지 (A국가 570€, B국가 430€)

· 4월 1일부터 (A국가 590€, B국가 450€)

참조: <http://bertosch.free.fr/iik2020/>

문의: [infana.kongreseto@gmail.com](mailto:infana.kongreseto@gmail.com)

### 카르트벨리오(조지아)에서 2주일 에스페란토여행

기간: 2020년 8월 8일(토)~23일(일)

참가비: 920€ (숙식, 관광 포함)

문의: [fabrejis@gmail.com](mailto:fabrejis@gmail.com)

## 2019년 한국 에스페란토운동

### 협회 활동

#### 신년 모임

2019년 1월 12일 17:15, 협회 사무실, 13명 참석.

#### KEA 대의원총회

- 정기총회 (2월 16일): 전국겨울강좌 행사장(유성유스호스텔), 전창성 임시대의원 의장의 사회로 2018년 재정결산안과 2018년 재정예산안을 심의 및 승인.
- 임시총회 (10월 5일): 51차 한국대회 행사장(진주 배영초등학교 소회의실), 대의원 35명 중 참석 16명, 위임 12명, 김시현 임시대의원 의장의 사회로 신입임원 선출 (회장: 서진수, 부회장: 강병훈 김인홍 오순모 정현주, 이사: 김용진 김주 엄미련 유영애 이남행 이용철 이현숙 장영은 정희정 최유식 최정욱 최정철 한숙희, 감사: 이길성 유필근)

#### KEA 주최 전국 겨울·여름강좌

- 겨울강좌(2월 16~17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 69명, 세미나 6, 강좌 2, 발표 16, Alparolantoj, 엽서쓰기, 지부보고, 친교의 밤 / 청년 6명에게 50,000원씩 지원.
- 여름강좌(6월 29~30일, 유성유스호스텔): 45명, 강연 2, 강좌 6, 주제발표 5, 나도 한마디 13 진행.

#### 제102주년 자멘호프 추모제

- 4월 13일 17:00~19:00, 서울시민청 워크숍룸, 25명, 강연: 정원조 명예회장 'Okaze de la centjara jubileo de KEA-fondigo', 서진수 KAEM 회장 'Azia Esperanto-Movado & Esperantistoj'.

#### 제160주년 자멘호프 탄신제

- 12월 15일 15:00 서울 시민청, 57명 참석.
- 강연: 정원조(KEA창립 100주년 준비위원장)의 'Gravaj pioniroj laŭ la periodoj' / 전경덕(KEA 지도위원)의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한국에스페란토운동'

#### 제2회 에스페란토 책의 날 (Tago de Esperanto-Libro)

- 독서캠페인: 2019년 3월 1일 ~ 11월 30일 (9개월)

- 제160회 Zamenhof-Tago와 함께 진행
- 올해의 독서인상: 자멘호프 상(박수진), 안우생 상(양현준), 김억 상(이충원), K. 칼로차이 상(박정숙), J. 바기 상(정다운 최영희), W. 올드 상(박기환).

#### 제21회 선구자의 날

- 5월 11일 11:00,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이재현 선생 묘소 참배, 13명 참석.

####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창립 100주년

- 준비위원장: 정원조 명예회장
- 준비위원: 이영구, 강헌구, 박용승, 박찬복, 신현규, 오순모, 유영애, 이남행, 이용철, 정유로, 최유식, 최정철, 허성 (*준비현황: 2019년 11/12월호 4쪽 참조*)
- 자문위원: 곽종훈, 김상익, 김시현, 김영명, 김우선 마영태, 박강문, 박기환, 박화중, 서길수, 서진수 이낙기, 이중기, 전경덕, 조명자, 최대석, 한덕섭.
- 주제: ‘지나온 100년의 발자취’ 혹은 ‘앞으로 100년을 위한 발전 방향’
- 날짜: 2020년 10월 9~11일 (3일)
- 장소: 영등포 소재 ‘Hi Seoul’ (52회 한국대회)

#### 제51회 한국에스페란토대회

- 10월 5~6일, 경남 진주 배영초등학교
- 참가: 129명(일본 14, 중국 4, 벨기에 1, 스페인 1, 브라질 1 포함)
- 주제: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Kion ni faru okaze de la 100-jara jubileo de KEA?), 부제: ‘진주에 새 바람이 불었다’ (Venis nova vento al Jinju)
- 시상: 19회 해평민족상(곽종훈), 우수지부상(서울지부, 광주전남지부), 우수활동상(이길성, 전경옥)
- 대회전관광: 진주성, 축석루, 개천예술제 관람.
- 대회후관광: 삼천포 일대의 죽방렴, 케이블카

#### 9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에스페란토대회

- 4월 25일~28일, 베트남 다낭시 로얄 로터스 호텔, 22개국 281명(한국 74명) 참석, 주제: ‘Esperanto kaj Kultura Diverseco de Azio kaj Oceanio’, 신입 총무와 한국대표로 오순모 부회장 선출.

#### 37회 한·일·중·베 세미나리오

- 4월 29일~5월 3일, 베트남 다낭 우정협회, 약 50명 참석, 주제: Man-en-man protektu marmedion.

#### 104회 세계에스페란토대회 (UK)

- 7월 20~27일, 핀란드 라티, Isku Arena 빙상경기장
- 주제: “Vivanta Naturo, Floranta Kulturo?”
- 57개국 917명(한국 32명) 참석
- Movada Foiro에서 기관지로 협회 활동 홍보.
- 불교분과(서길수), 원불교분과(오순모), 국제예술의 밤(전경옥, 조문주), 한국인의 밤 진행.
- UEA 임원에 서진수 교수 당선. (아시아, 오세아니아, 홍보, 신입회원 담당)
- 세계차사랑협회(이사 이중기) 창립총회.

#### 48회 세계 어린이/청소년 대회 (IIIK)

- 7월 20일~27일, 핀란드 라티
- 주제: “Mil kaj unu lagoj”

#### 52회 세계에스페란토교육자연맹회의(ILEI-Konferenco)

- 7월 13일~2일, 세르비아 Čačak
- 주제: “Lernado en virtualaj komunumoj”
- 22개국 약 50명(한국 13명) 참가.
- Lingva Festivalo에서 한국어 교육 담당: 이충원

#### 75회 세계에스페란토청년대회 (IJK)

- 7월 28일~8월 4일 슬로바키아 Liptovský Hrádok
- 주제: “Kontraŭ antaŭjuĝoj”
- 35개국 231명(한국 5명) 참가.
- TEJO 임원에 정유로 선출 (2019~2020)

#### 92회 세계무민족성협회(SAT) 대회

- 8월 4~11일, 스페인 Barcelono
- 참가: 220명
- 강연: 정현수 (어린이 책 속의 소수자들)
- 토론: 정현수, 남교용 (한반도의 평화)

#### 55차 발트에스페란토대회 (BET)

- 7월 6일~14일, 리투아니아 파네베지스
- 37개국 450명(한국 39명) 참가.
- 강연: 이중기 (Kien azia Esperanto-movado iras)
- 음악회: 전경옥 (Koncerto de Amira Chun) 성민우·김윤희·Jogailė Čojūtė (Pacon Kune)

#### 100차 일본에스페란토대회

- 10월 12~14일, 사이타마, JEI 100주년 행사와 병행
- 235명 참가 중 한국 14명(현지 거주인 2명 포함).
- 서진수 회장 강연: “Azia movado en la flanko kaj okuloj de UEA”

#### 일본 오오모토 월년합숙

-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1월 2일, 참석자

120명 중 한국 23명(어린이 6명 포함).  
**KEA가 표창한 시상 (2019년)**

- 제19회 해평민족상: 곽종훈
- 우수 지부상: 서울지부, 광주전남지부
- 우수 활동상: 이길성, 전경옥

**실력검정시험**

- 107차 (전국겨울강좌): (초급) 장용숙 (중급) 김송아, 류진숙, 박수진, 안정희, 이미경, 최정철
- 108차 (전국여름강좌): (초급) 김민재
- 109차 (51차 한국대회): (중급) 강보연, 조대환

**KER (유럽공통언어검정 에스페란토 부문)**

- 6월 15일 16:00~20:00, 한국외대(서울) B1(8명), B2(5명), C1(7명)에 총 20명 응시, 5명(B1), 3명(B2), 7명(C1) 합격.

**회원가입 현황 (2019년 2월 ~ 2020년 1월)**

- 평생: 서영원
- 일반: 강희선, 김계자, 민승준, 심명기, 양일규, 양진형, 양현준, 엄춘영, 용미중, 이경옥, 이기주, 이미지, 이재숙, 이효성, 정미숙, 정세양.

**La Lanterno Azia 편집부 (편집위원장 조명자)**

- KEA 기관지 6권(제356호~361호) 발행.
- 기관지발행 후원: 김영명(1/2월), 원불교에스페란토회(3/4월), 김우선(5/6월), 김주(7/8월), 정원조(9/10월), 서진수(11/12월)

**Libroserve (이용철)**

- 시립/구립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에스페란토 관련 도서 신청 운동 실시.
- 리브로세르보 자원봉사단 구성: 이용철, 전경덕, 정다운, 박수진, 박정숙, 최숙희, 최정철.
- 6월 30일, 김주 KEA 이사가 '신약성서(마태)를 Libroserve, 서울지부,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에 기증.
- '찾아가는 책방': 합계 2,237,500원
  - 전국겨울강좌: 판매 486,000원
  - 38회 남강학교: 판매 321,000원, 경매 347,500원
  - 51회 한국대회: 판매 822,000원
 도서상품권 261,000원

**'2.8 독립선언서'의 에스페란토 번역**

- 서울시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8 독립선언서'의 에스페란토 번역을 의뢰, 리투아니아의 최대석님이 무료로 번역.

**청년회, 지부, 지회, 론도 활동**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KEJ, 회장 신현규)**

- 교육: 상/하반기에 걸쳐 5회 진행
- 38회 KS(2020년, 한국) 준비모임: 8월 24~25일, 대성리, 17명 참석, 주제: Komune Seminarion.
- 정유로: 75차 세계대회에서 TEJO 임원으로 선출.
- 오회연 부회장: TEJO-Komitatano A로 선출.

**경남 지부 (지부장 류진숙)**

- 제51회 한국에스페란토대회 개최: 10월 5~6일, 경남 진주 배영초등학교, 참가 129명 (일본 14, 중국 4, 벨기에 1, 스페인 1, 브라질 1 포함) / 주제: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부제: "진주에 새 바람이 불었다"
- 중급반: 매주 화요일 19:00, 배영초교 교장실, 7명
- 초급반: 매주 화요일 17:00 배영초교 교장실, 서외남 외 3명 (지도 류진숙)
- 초급반: 매주 금요일 17:00 김쌍순 개인 사무실, 손부회 외 4명 (지도 김쌍순)

**경북 지부 (지부장 김성현)**

- 정기모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광주전남 지부 (지부장 백수정)**

- 정기모임: 격주 화요일 저녁 6시.
- 초급강좌 (김송아 지도): 3월 첫 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광주 Suni 공방, 6명 수강.
- 순천 초급강좌: 11월 12일부터 2개월, 안정희 지도, 말씀과 밥의 집(행금길 28-8), 20000원(교재포함).
- 7회 광주전남지부·전북지부 에스페란토 학습모임: 5월 31일~6월 1일, 양림동 아리네게스트하우스, 주제: '역할극을 이용한 말하기 활동', 24명 참가, 분과 3, 주제강연 2, 놀이·친교, 양림동 문화탐방.
- 8회 광주전남지부·전북지부 공동연수 (8회부터 학습모임을 공동연수로 명칭 변경): 11월 29~30일, 진안 만덕산수련원, 참가 31명(대만 2, 중국 2 포함) Kantado·Sinprezento(이현미), Raporto(이순이), Jogo(Yvonne), Kartludo(이정희), Prezento 1(민현경), Prezento 2(Liru), 3 Budoj, 소풍(마이산) 진행.
- 광주전남지부 1일 연수: 8월 20일, 담양 펜션, 13명, Raporto(김송아), Kanto(백수정), Kvizo(김송아) 진행.

### 대구 지부 (지부장 김원식)

- 정기모임: 매주 화요일 19:00(제1화요일 지부 이사회, 제3화요일 지부월례회, 그 외 에스페란토 책 읽기)
- 7월 7일 12:00, 향촌 이종영 선생 선종 11주년 기념 추모식(경북 군위읍 용대리 가톨릭묘원 5지구 5단지 114호)
- 38회, 39회 남강학교 (교장 곽중훈)
  - 38회 남강학교 (봄학기, 3월 23~24일): 28회 국제연수회와 함께 '에스페란토 마을' 형식으로 공동 개최 / 128명 참가 (일본 11, 스페인 1, 러시아 1, 명예참가 8) / 강연, 발표, 강좌, 토론 외 심폐소생술, 마을안과, 초상화그리기, 프랑스놀이, 책갈피공예, 음식만들기, 노래, 춤 등 다양한 분과 진행.
  - 39회 남강학교(가을학기, 11월 16~17일): 37명 참가, Lingva, Arta(박수진 진행), Z-(s)eminario 진행 / Lingva: 입문초급(박수진), 심화문법(장수미), 패턴회화(김인혜), 자유회화(김인홍), 노래춘극(조원석) / Z-(s)eminario(토론): 'Kiel vastigi, Kiel duobliĝi'
- 대구회보 'Informilo el Taegu': 354~366호 발행.

### 부산 지부 (지부장 김일철)

- 정기모임: SNS 등을 통해 소통하기로 하고, 정기모임은 1년에 두 번(봄, 가을) 갖기로 함.
- 1월 8일: 신년회 및 임시총회
- 제5회 시민강좌 (강사 김가람, 보조 조대환): 1월 22일~2월 26일 매주 화요일 5회, 부산 한 살림 '결'.
- 6회 시민강좌 (지도 오기숙): 5월 29일~7월 9일 매주 수요일 (7회), 화명동, 3명 수강.
- 봄맞이 수정산 트레킹: 3월 9일
- 6월 12일: 중앙여고 수업(강사 오기숙)에서 마르쿠스 가보르 박사 특강.
- 12월 11일: 신입지부장으로 조대환 선출, 부지부장 대신 자문단(전 부산지부장 모두)을 구성.
- 지부 월간지 TERanidO(장정렬): 251호~275 발행.

### 서울 지부 (지부장 이남행)

- 월례모임: 매월 셋째 수요일 저녁
- 개소식: 2월 20일 19:00~21:00, 명동 동북빌딩 504호
- 임원: 자문위원 임한우 박수현 강현구, 지부장 이남행, 총무부장 오순모, 총괄부장 장영은, 학습부장 이현숙, 지식정보 최정철, 친교부장 정병미, 대외부장 장수미,

- 홍보부장 순선훈, 문화부장 최숙희, 도서부장 박정숙.
- Zamenhof-Klubo와 Verda Ekskurso 계속 진행.
- 8월 12일: 스페인에스페란토연맹 회장 Jose Antonio del Barrio 초청강연(스페인과 스페인에스페란토운동). 20명 참석.
- 11월 13일: 우크라이나협회장 Eüheno Kovtonjuk 방문
- 12월 17~21일: 중국 상하이에스페란토협회와 공동주최로 상하이에서 'La 1a Esperanto-Forumo de Seulo kaj Shanghai' 개최, 14명 참가. 자매결연 체결, 제2회는 2020년 52회 한국대회에서 개최.
- 매월 첫째 화요일을 <영화감상의 날>로 정함
- 후원: 안중수 (15만원)

### 수원 지회 (지회장 김영호)

- 정기모임: 격월 1회
- 초급강좌(매주 1회 3개월 과정, 6명 참석)
  - 지도: 안정희, 이길성
  - 교재: 에스페란토 회화
- 매주 Skype·Zoom 활용 외국 에스페란티스토와 대화

### 인천 지부 (지부장 조명자)

- 정기학습모임(매월 1~2회), 인천 문일여고 교장실
- 임동혁 회원이 준비 중인 유튜브 강좌 'Esperanto Kajero'를 토대로 학습모임 진행.

### 익산지회(지회장 고영희)/원불교에스페란토회(회장 홍성조)

-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에스페란토 동아리 (박영숙 지도): 매주 수요일 14:30~16:30, 1/2학년 10명.
- Esperanto-Tago (박용신(박영숙) 지도): 매주 일요일 15:00~18:00 (오후 3시 후초급, 오후 4시 초급), 정토회관, 6명 참석.
- 제104회 세계에스페란토대회(7.20~27, 핀란드 라티)에서 원불교분과 (오순모, 한숙희, 김인홍, 전경옥).
- 15회 국제선방(6.6~9, 배내청소년수련원, 주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세상'): 5개국 54명 참석, 개회식, 강연 9, Libera rondo 4, Libera rakonto 17, 콘서트(전경옥), 반일관광(통도사, 자수정 동굴나라), 국제의 밤, 아침 좌선, 저녁 108배, 폐회식 진행.
- 에스페란토 강습
  - 9월 17일~11월 12일, 매주 화 13:00~15:00, 강남교당, 강사 이중기, 월 50000원 (교재 포함)
  - 11월 19일~12월 31일, 매주 화 13:00~15:00, 중구교당, 강사 이중기, 월 20000원 (교재 포함)



### 전북 지부 (지부장 이선희)

- 정기모임: 매달 두 번째 토요일 12:00, 큰가마하누소
- 스카이프 학습(초급, 이현미 지도):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교재: BEK-Kurso 1, 3명 참석.
- 스카이프 학습(후초급, 이현미 지도):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교재: BEK-Kurso 3, 5명 참석.
- 7회 광주전남지부·전북지부 에스페란토 학습모임: 5월 31일~6월 1일, 양림동 아리네게스트하우스, 주제: '역할극을 이용한 말하기 활동', 24명 참가, 분과 3, 주제강연 2, 놀이·친교, 양림동 문화탐방.
- 8회 광주전남지부·전북지부 공동연수 (8회부터 학습모임을 공동연수로 명칭 변경): 11월 29~30일, 진안 만덕산수련원, 참가 31명(대만 2, 중국 2 포함) Kantado·Sinprezento(이현미), Raporto(이순이), Jogo (Yvonne), Kartludo(이정희), Prezento 1(민현경), Prezento 2(Liru), 3 Budoj, 소풍(마이산) 진행.

### 청주에스페란토회

- 2018년 5월부터 매주 월요일 09:00~12:00 Lundo Verda란 이름으로 학습모임 진행, 3명 참석, 교재는 MEMORI KAJ FORGESI (Trevor Steele 저)이며, 학습 후 한국어 번역판 출간을 목표.

### 론도 활동

- Espera Monto (회장 한덕섭, 매월 셋째 일요일): 1월 아차산, 2월 북한산, 3월 청계산, 4월 북한산 우이령, 5월 남한산성, 6월 설악산, 7월 대모산, 8월 안산 둘레길, 10월 거마산, 11월 응봉산, 12월 관악산(신임회장으로 정애자 선출)
- Rondo Amuze (회장 심명기, 지도 전경옥): 매주 수 18:00, 회원 16명.
  - 38회 남강학교 봄학기: 노래배우기(전경옥) 진행.
  - 102주년 자멘호프 박사 추모제(4.13, 서울시민청): 합창 'Havu forton, pura akvo!' 독창 'La vojo'.
  - 55회 발트에스페란토대회(7.6~14): 전경옥 씨의 'Koncerto de Amira Chun'에 코러스로 부분 참여.
  - 거리공연: 11월 20일 18:00, 명동 문화원 근처. 주제 '아름다운 명동에서 사랑을, 사랑을, 세상을 노래하자', 13명 참여.
  - Zamenhof-Tago (12월 15일 3시, 서울시민청): 합창에 11명 참여 - La lingvo por ni, Verda Arirang, Paca nokt' sankta nokt', Vidu eksteren.

- Verda Ekskurso (이용철, 초록별 문화유산 답사회) 진행: 이현숙/최정철(상반기), 이현숙/강현구(하반기)
  - 1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17명)
  - 2월 23일: 수원 화성 2차 (13명)
  - 3월 30일: 서오릉 (11명)
  - 6월 1일: 마곡사 (18명)
  - 8월 31일: 창덕궁 (15명)
  - 9월 28일: 종묘 (12명)
  - 11월 30일: 동구릉 (9명)
- Zamenhofa Klubo (회장 박강문): 3월 31일 임시총회에서 박강문 ZK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 입회 자격을 에스페란토 입문 시기와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으로 문호 개방.
- 시각장애인 론도 (회장 강태봉, 총무 최세연): 짝수 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정기모임. <성북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외국어학습을 위한 2019 독서문화프로그램 '새로운 언어를 찾아서 - 에스페란토란 무엇일까?' 진행, 3월 14일 ~ 5월 16일 (총 10회), 지도 민현경, 수업료 2만원, 9명 참석.

###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 (원장 이중기)

- 문화원과 함께 주최하는 28회 국제에스페란토연수회(일본에스페란토보급회)를 38회 남강학교와 '에스페란토 마을' 형식으로 공동 개최: 3월 23~24일, 남강서원, 128명(일본 11, 스페인 1, 러시아 1, 명예참가 8) 참가.
- '에스페란토 구약성경' 읽기 모임: 2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7~9시, 강사 박수현.
- 4월 28일~5월 2일: 이중기 문화원장 캄보디아에스페란토협회 방문, 에스페란토 도서 기증.
- Ŝlosila Metodo (쓸로실로 교육방법): 에스페란토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에스페란토 문법을 도표로 표현함.
- 6월 29일, 이중기 원장 UEA B이사 및 국가지부, 분과단체 심의 위원으로 피선. (임기: 2019~2022)
- 요일별 강좌: (월) 초급후 낮반, (화) 원불교 중구 교당 강의, 성경반, (수) 초급 입문반, (목) 250문장, 낮반, 저녁반, (금) 삼성반, (토) 초급 입문반.
- 에스페란토 입문 강좌: 332기까지 진행.

### 중앙여고(부산) 동아리 '유랑' (에스페란토 특강)

- 지도: 오기숙, 회원: 14명

- 시간: 14:40~16:30 (2시간)
- 5회 진행: 4/3, 5/5, 6/12, 10/30, 12/4

**한국외대 에스페란토강좌 수료생 (단위: 명)**

- <1학기> 서울(68), 글로벌(62) : 이영구  
여름 계절학기(56) : 이영구, 신현규
- <2학기> 서울(67), 글로벌(58) : 이영구  
겨울 계절학기(70) : 이영구, 신현규

**카톡 활용 학습방**

- ZE(연습문방): 매월 갱신, 100명, 매일 자멘호프 연습문 1과를 읽거나 통역식으로 녹음. <박미숙>
- Legado(읽어 주고 받기): 매월 갱신, 31명, 책의 한 부분을 읽고 녹음. <박용승>
- Odal(오늘도 달달달): 매월 갱신, 23명, 매일 1분 분량의 자멘호프 문장이 제공되면 각자 문장 분석, 쓰기, 번역, 암송 등으로 연습. 자멘호프 연결문 발췌, 본질과 미래 전문, 인류인주의 전문. <조원석>
- 단어방: 19명, 교재: BEK, Zamenhofa Ekzercaro, BRO2-9, 4시간만에 배우는 에스페란토. 1일 해당 단어 활용 3문장씩 작문, 단어 녹음. <최정철>
- Skribadi(익명 오픈채팅방, 검색명 skribadi, 암호 sojlo): 5명, 주제 무제한, 무교정 쓰기방. <방충: 익명>
- 공부방: 4명, 자율 학습. <박용승>
- 통독방: 2019년 12월~, 11명, 보이스톡으로 운동. 본질과 미래, 그림동화, 자멘호프 연결문 <박용승>
- 50-Esperante(회화문형 연습): 2019년 12월 10일~, 10명, '50-Esperante'(그림 0번/10번 연습). <김인혜>
- 마감된 단기 카톡방
  - Ion skribante(쓰기방): 2019년, 7명, 자유 쓰기. 오달에서 발견한 문형 활용 쓰기. <조원석>
  - 책 Babilejo: 2019년 1월~5월, 13명, 한국어책을 읽고 녹음, 소감이나 대화는 에스페란토로 쓰기, 5개월간 85권. <박용승>
-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방
  - 서울 월요방: 2017년 12월~ 매주 월요일, 명동 동북빌딩 504호, 16명, 교재: BEK1-4, 온라인에서 녹음파일 듣고 답하기. <장수미>
  - 서울 수요일방: 2017년 12월~, 11명, 교재: 뽀뽀, 2페이지씩 돌아가며 읽고 번역. <장수미>
  - 죽전 목요일방: 2018년 11월 7일부터 목요일 19:00~21:00, 11명, 교재: Esperanto(UEA 기관지),

번역학습은 만나서 복습은 온라인에서. <장수미>  
- 영·에·한 번역 학습방: 2019년 6월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영어회화, 영·에·한 5문장씩. <장영은>

**스카이프 강좌**

- 대안학교 교사들의 배움터 '삶을 위한 교사대학' 강좌  
강사: 신은숙, 송영미, Michel Fontaine(프랑스)  
- 초급 회화반: 주 1회 (4명)  
- 자유 회화반: 주 1회 (4명)  
- 리딩 동아리: 3명

**신간 안내**

- La Ekzercaro de Esperanto en Bildstrioj: 저자 박미홍, 편집 장정렬, 타자 전미옥, 그림 최재영 / 교문사, 2019년 2월 15일 발행, 120쪽, 15000원.
- Vojaĝo de Onia, Japana: 저자 김은누리, 2019년 7월 1일 발행, ISBN: 9791196244118, 10000원.
- La Desana Instruo: 번역 최대석, 원불교, 2019년 발행, 327쪽, 10000원.
- 인류에게 공통의 언어가 있다면: 번역 최만원, 갈무리 출판사, 2019년 9월 30일 발행, 312쪽, 18000원.
- 초록의 마음: 번역 장정렬, 갈무리출판사, 2019년 9월 30일 발행, 208쪽, 12000원.

**보도 자료**

- 매일신문 (3월 26일, 노진규 기자): 제목 <청도 남강서원, 국제공용어 에스페란토 학습 '국제 잔치'>, 38차 남강학교와 28차 국제연수회 관련 보도.
- 경남일보 (4월 8일, 최숙향: 시인, 초등학교 교감): 제목 <에스페란토(Esperanto)>, 세계화 시대에 맞게 급부상되는 언어로서 에스페란토를 소개.
- 웹데일리 (5월 9일 14:15): 제목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 에스페란토인들의 축제>, 제9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에스페란토대회 관련.
- 원불교신문 (6월 14일, 이은전 기자): 제목 <에스페란토 정신, 원불교 일원주의에서>, 제15회 국제선방을 배내수련원의 특징을 살린 원불교 선체험으로 소개. (인터뷰: 홍성조 원불교에스페란토회 회장)
- 용인신문 (11월 10일, 김종경 기자): 제목 <에스페란토는 언어를 통한 세계평화운동>, 서진수 회장의 인터뷰 내용 소개.

**<정리: 조명자 / 편집위원장>**

## 1.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안내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는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 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에스페란토를 보급하며, 나아가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0년 김억 등에 의해 설립된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의 전통을 계승하며, 1976년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의 한국 지부가 되었고, 1986년 12월 사단법인화가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기관지 “에스페란토” 발간, 강습회 개최, 기타 국내외 각종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이 있다.

## 2. 입회 방법

에스페란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회할 수 있다. 연회비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로 보내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협회 기관지를 받게 되며 각종 행사에 할인 혜택을 받는다.

### 회비:

일반회원 50,000원 가족회원 25,000원  
학생회원(초등학생 이상, 대학원생 제외) 20,000원  
평생회원 1,000,000원 후원회비 성의껏

**회비 납입 계좌** : 국민은행 031-01-0365-220 [예금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전국 지부 연락처

### 경남지부 - 지부장 : 류진숙

부지부장 : 조만진 총무 : 강병훈  
52671 진주시 신안로 126번길 18 넝쿨채 102호  
010-2663-0703 / jscos@hanmail.net (류진숙)  
정기모임 : 매주 화요일 7시

### 경북지부 - 지부장 : 김성현 총무 : 이상호

37774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6(죽도동) ESPERO내과  
054-282-0708, 전승겸용054-274-2403  
[이상호] marktri@hanmail.net 또는 belaaastro@nate.com  
정기모임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 광주전남지부 - 지부장 : 백수정 총무 : 김송아

61126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81, 204동 501호  
kristalo1005@daum.net  
정기모임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7시  
지부카페 : <http://esperanto.or.kr/club/GJfilio>

### 대구지부 - 지부장 : 김원식

부지부장 : 김진호, 박미홍, 한수민 총무 : 박정섭  
42430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5길 42-2 내외빌딩4층  
053-475-1887 / 010-3829-1675(지부장)  
taeguesperanto@hanmail.net  
정기모임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7시 지부 사무실  
지부카페 : <http://esperanto.or.kr/club/TaeguFilio>

### 대전충남지부 - 지부장 : 정명관

부지부장 : 김종광 총무 : 박남미  
3521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70, 105동 306호(월평동, 누리아파트)  
mkjng1@nate.com  
학습모임 : 매주 화요일 18시

### 부산지부 - 지부장 : 조대환

총무 : 유미경  
4623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219번길 48, 101-1902(구서동 신동아아파트)  
granda81@hanmail.net  
웹사이트 : <http://teranido.blogspot.kr>

### 서울지부 - 지부장 : 이남행 총무 : 오순모

01181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53길 35 103동 401호 미아동 반석타운  
kanguruo999@gmail.com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Esperanto>  
정기모임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 인천지부 - 지부장 : 조명자 총무 : 임동혁

14619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07, 126-1101(중동, 팰리스카운티 아파트)  
ds2edr@daum.net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VerdajSteletoj>

### 전북지부 - 지부장 : 이선희

부지부장 : 정소영 총무 : 이미경  
550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9길 33, 3동605호(중화산동2가)  
sunny3305@hanmail.net

### 강원지부 - 지부장 : 최영숙 총무 : 한순희

24331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70-2  
najting@hanmail.net

### 수원지회 - 지회장 : 김영호

부지회장 : 박영찬 총무 : 임성택  
18101 경기 오산시 양산로398번길 8-11 (양산동)  
esperanto@lge.com, sukmi60@hanmail.net  
정기모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지회카페 : <http://cafe.naver.com/suwonaesperanto>

### 안양지회 - 지회장 : 김철민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220 유진빌라 가동 101호  
popolo@saluton.net

### 익산지회 - 지회장 : 고영희 총무 : 최운이

54593 전북 익산시 중앙로5길 9 (중앙동3가)  
역전보화당한의원 내 에스페란토의집  
dau0707@hanmail.net  
지회카페 : <http://cafe.daum.net/zinio81>

### 천안지회 - 지회장 : 박종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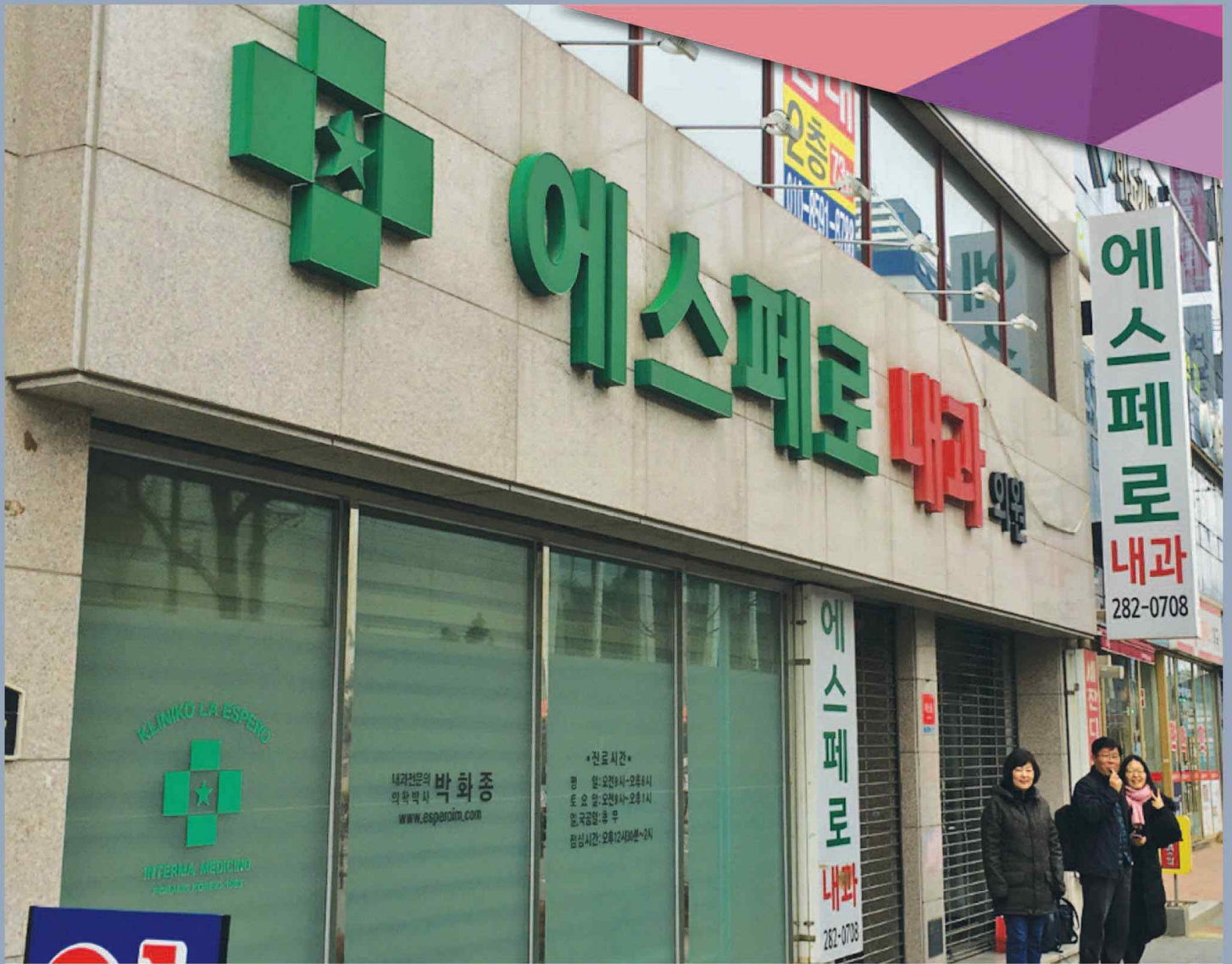
3118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33, 119동-102호  
studema@paran.com

### 합천지회 - 지회장 : 이미경

50247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1길 37 원경고등학교  
cosmoslmk@hanmail.net

###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 회장 : 신현규

부회장 : 오희연, 박상현 총무 : 박장호  
010-8289-5788, 010-4858-9079, 010-9192-2671  
블로그 : <http://kejesperanto.blogspot.kr>



KLINIKO LA ESPERO



INTERNA MEDICINO  
1993. POHANG. KOREIO

# 에스페로 내과의원

원장 박화중

내과전문의 · 의학박사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17  
Tel. (054) 282-0708  
Fax. (054) 274-2403  
<http://www.esperaim.com>

